



같은 듯 다른 이야기

◆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행동을 비교해 봅시다.



두 그림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그림에 ○표를 해 봅시다.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나?



두 마리 염소

넷물 위에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풀을 뜯던 염소 한 마리가 건너편에는 어떤 맛있는 풀이 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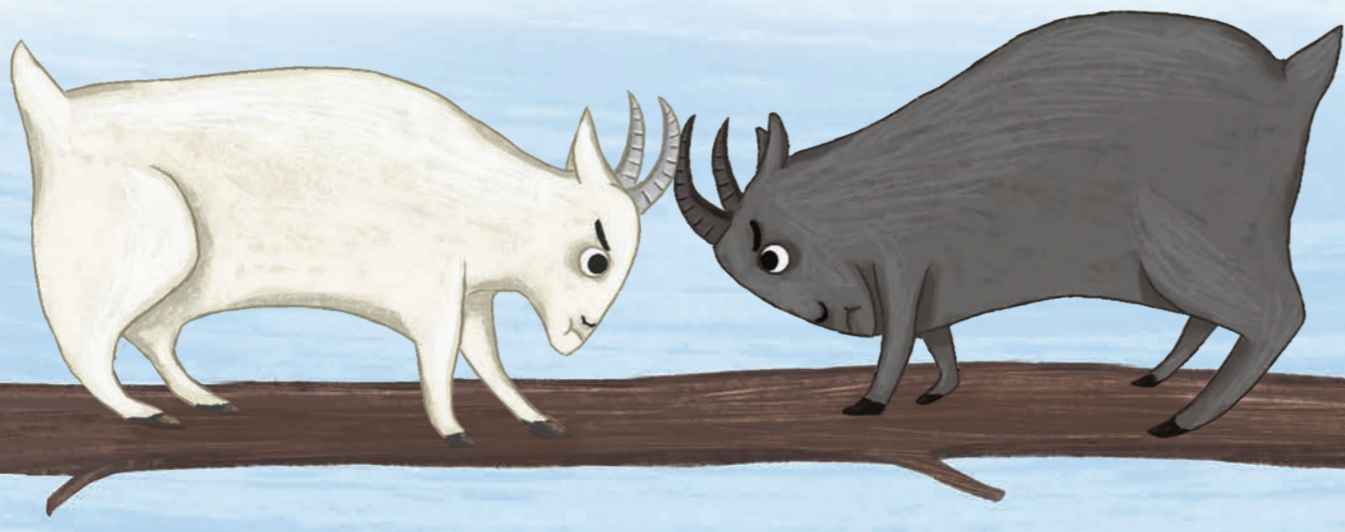
염소는 외나무다리를 뚜벅뚜벅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도 다른 염소 한 마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마리 염소는 외나무다리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마리 염소는 서로 길을 비키라고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폭이 좁은 외나무다리라 비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마리 염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야, 비켜! 내가 먼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단 말이야.”

“뭐야? 다리를 먼저 건너기 시작한 건 바로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비키란 말이야.”



두 마리 염소는 한 시간이 넘도록 서로 노려보며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양보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시간이 지나자, 두 마리 염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씩씩거렸습니다. 마침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머리를 들이받으며 덤벼들었습니다.

“어어…….”

“어라, 어어라.”

밀고 밀리던 두 마리 염소는 모두 넷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염소 살려, 푸아푸아.”

“나도 살려, 푸아푸아.”

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두 마리 염소는 그제야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비켜 줄 걸…….’

‘내가 양보할 걸…….’



쫑쫑이와 넓죽이

쫑쫑이는 작고 귀여운 다람쥐입니다.

어느 날, 쫑쫑이는 엄마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건넌마을에 사는 아저씨 댁에 가서 톱을 빌려 오는 일이었습니다.

쫑쫑이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들판을 지나자 개울이 나왔습니다. 개울에는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폭이 좁고 걸을 때마다 흔들거리서 쫑쫑이가 건너기에 무척 힘든 다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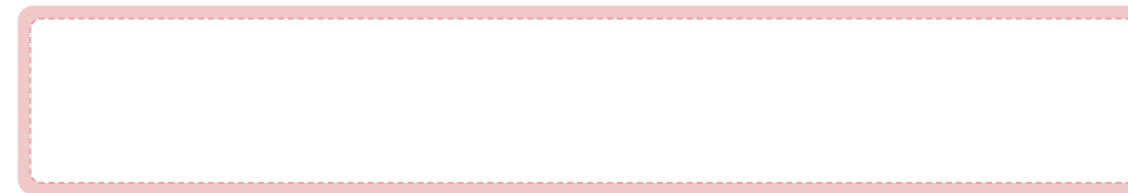
쫑쫑이는 조심조심 외나무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신히 중간쯤 건넌을 때였습니다. 누구인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건넌마을에 사는 넓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였습니다. 외나무다리는 너무 좁아서 서로 비켜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돌아가. 나는 바쁘단 말이야!”

“너만 바쁘니? 나는 더 바빠!”

둘은 자기가 더 바쁘다며 한참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쫑쫑이는 이렇게 다투다가는 끝이 없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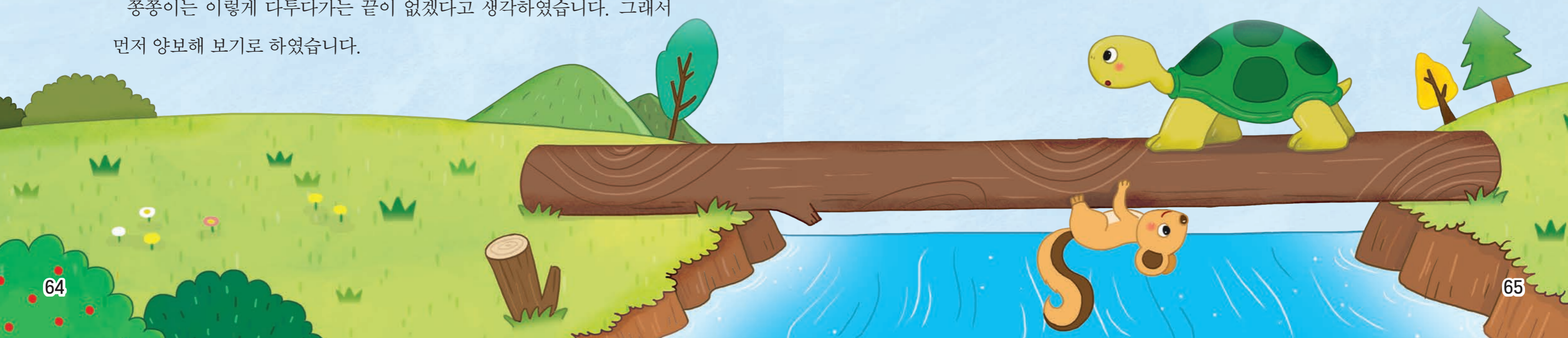
쫑쫑이는 외나무다리를 부둥켜안고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쫑쫑이의 팔과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쫑쫑이가 외나무다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넓죽이는 무사히 다리를 건넌습니다. 그리고 쫑쫑이도 외나무다리 위로 올라가 반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쫑쫑이야, 팔 많이 아팠지? 다음에는 내가 양보할게.”

넓죽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럼 안녕!”

쫑쫑이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쫑쫑이는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두 마리의 염소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나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2 넓죽이가 먼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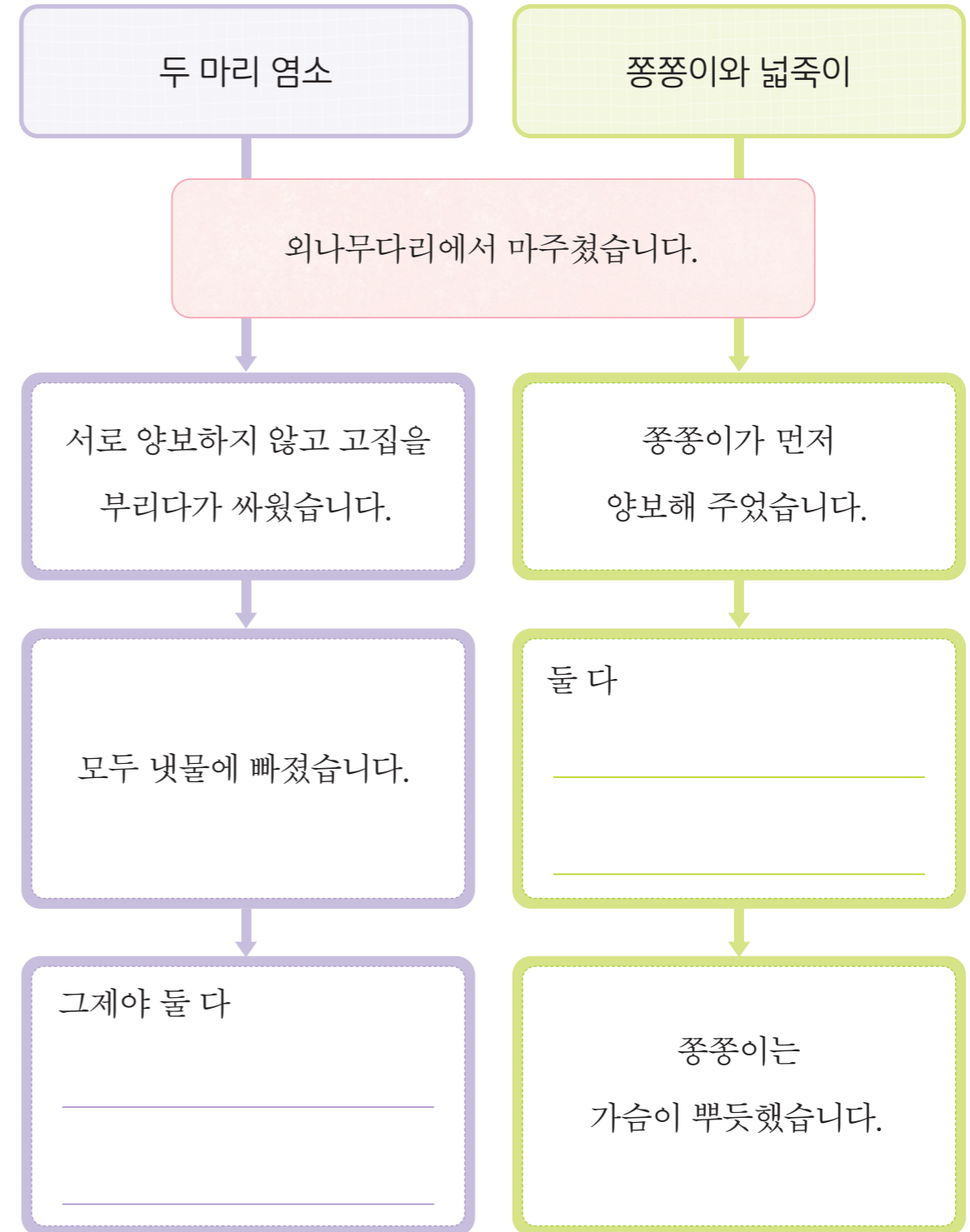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2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대화를 짐작하여 써 봅시다.

두 마리 염소	염소 1:
	염소 2:

뽕뽕이와 넓죽이	뽕뽕이:
	넓죽이:

3 「두 마리 염소」와 「뽕뽕이와 넓죽이」에서 인물의 행동을 비교해 봅시다.



4 「아기 돼지 세 형제」를 읽고 세 형제의 행동을 비교해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아기 돼지 세 형제

옛날 옛적에 아기 돼지 세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혼자 살아갈 만큼 자랐으니 집을 떠나 살도록 해라.”

엄마 돼지는 숲속에 사는 늑대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첫째 돼지는 짚으로 열기설기 집을 짓고, 새집에 들어가 편히 쉬었습니다.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 어떻게 할까?”

둘째 돼지는 나무로 딱딱딱 집을 짓고, 밖에 나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려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셋째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튼튼한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숲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얼른 도망쳐서 자기 집에 들어가 꼭꼭 숨었습니다.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늑대는 입김을 모아 후우 후! 후우 후!

짚으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 입김을 모아 후우 후! 후우 후!

나무로 만든 둘째 돼지의 집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후우 후!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벽돌로 만든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움 다지기

- 이야기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았나요?
- 인물들의 행동과 결과를 비교해 보았나요?

